

OND6) 대구 약전골목의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 · 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대구광역시 중구의 약전골목은 대구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골목으로 관광특화거리인 ‘근대문화골목’ 중 하나이다. 약전골목은 조선시대 경상도지역의 한약재를 사고파는 시장에서 기원하였다. 약전골목에서는 1978년에 시작된 한방문화축제가 매년 봄에 열리고 있으며,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마다 갖는 장소성이 다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장소성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H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약전골목의 장소성 인식요인의 인과구조분석을 통해서 장소마케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약전골목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5월 6일에 조사를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98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지표는 CFI, TLI, RMSEA이며 CFI와 TLI는 0.90 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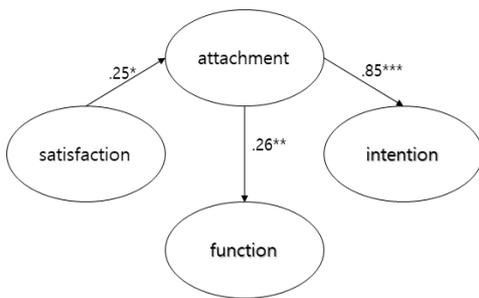


Fig. 1. Standardize estimates for final model.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애착과 장소기능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0.95, TLI=0.94 RMSEA=0.05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장소애착($\beta=0.248$, $p<0.05$), 장소애착→행동의도($\beta=0.845$, $p<0.001$), 장소애착→장소기능($\beta=0.26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소의 만족도가 재방문 등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전골목 장소성에는 장소애착이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전골목은 역사성을 지

닌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애착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약재 상점, 한방테마거리, 근대역사건축물 등의 특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Hong, K. G.,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nd economic value of ‘placeness’, J. Arch. Inst. Kor., 25, 255-262.